

다산포럼

송재소



살풍경이란 말은 '풍경을 죽이다.' 또는 '풍경을 감소시키다'는 뜻으로,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나 풍류를 모르는 사람의 엉뚱한 말과 행동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다. 요즘을 유행하는 '썰렁하다'는 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 용어는 중국 당나라의 시인 이상은(李商隱)이 지은 '잡찬(雜纂)'이란 글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한다.

유춘중재(游春重載): 봄날이 가면서 (먹을 것을) 잔뜩 신고 간다는 뜻인데, 봄 경치를 즐기러 가는 것인데 먹고 마시기 위하여 가는 것인데 모를 이런 나들이를 살풍경하다고 규정했다.

태상포석(苔上鋪席): 이끼 위에 방석을 깔아놓는다는 뜻으로, 바위에 나있는 아름다운 이끼 위에 방석을 깔고 앉는 사람의 멋대 가리 없는 행동을 살풍경하다고 했다.

월하과화(月下把火): 달 아래에서 불을 밝힌다는 것인데, 환한 달빛 아래에서 등

불 또는 햇불을 밝힌다는 것은 풍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의 행동임에 틀림없다. 기원설속사(妓遊說俗事): 기생 잔치에서 세속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기

살풍경(殺風景)

생이 있는 흥겨운 잔치 자리에서 분위기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서 좌중을 썰렁하게 만드는 뜻으로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살풍경한 장면이다.

자학소금(煎餉燒香): 거문고를 불태워 먹을 구워먹는 것으로 살풍경의 백미(白眉)라 할만하다. 천년을 산다는 학은 고고한 선비의 상징이고 거문고는 이러한 선비의 돌도 없는 짝이다. 그런데 거문고를 태워 학을 구워 먹다니... 이 상은의 '살풍경'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자 후대에 이 살풍경의 목록이 추가되었다. 황윤교(黃允交)는 '속살풍경(續殺風景)'이라 할 수 있는 글에서, 북치고 나팔 불면서 즉 풍악을 잡하며 산을 유람한다는 고취유산(鼓吹遊山), 소나무 숲에 측간을 만든다는 송림작축(松林作廁) 등을 살풍경 목록에 추가했다. 또 이런 항목도 있다. 명산벽상시(名山壁上題詩)로, 이른 산의 절벽에 시를 써놓는 행위를 살풍경이라고 했다. 자기가 왔다 갔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시재

살풍경(殺風景)

(詩才)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경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금강산 만폭동 차라바위 위에 새겨진 '조선의 영랑 민족의 자랑 김정일'이란 붉은 글자에 비하면 훨씬 덜 살풍경하다.

살풍경한 장면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중국 쓰촨성 미산현(眉山縣)에는 소파파(蘇東坡) 삼부자를 모신 삼소사(三蘇祠)가 있는 탓에 '삼소주(三蘇酒)'란 술이 있고 '동파독서실(東坡讀書室)'이란 관광도 눈에 띈다. 하지만 '동파사료(東坡

飼料)'란 상표는 분명 살풍경하다. 다산(茶山)이 유배되었던 전라남도 강진 읍내에 있었던 '다산 다방'도 말할 수 없이 살풍경하다.

어디 그뿐이라. 맞선 보는 자리에서 부동산 얘기만 늘어놓는 철없는 예비신랑, 음식장에서 매운탕을 시켜놓고 "땀이 않게 해주세요"라고 주문하는 젊음은 양반, 데이트 중에 군대 얘기에만 열을 올리는 식색한 젊은이의 행동 또한 현대판 살풍경의 한 예로 기록될 만하다. 뭐니 뭐니 해도 오늘날 가장 살풍경한 것은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휴대폰 소리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멜로디의 휴대폰 신호음은 이 시대 최악의 살풍경이라 할 만하다.

과묵한 도시생활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 수는 없을까? 풍경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풍경을 살리는 풍류와 낭만이 다시금 아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성균관대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운찬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는 됐지만...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우려곡절 끝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총리 정운찬'의 앞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우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깨끗하고 능력있는 경제학자'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비리 백화점처럼 불릴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지도력을 통해 스스로 도덕적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국정외 집행 책임을 맡는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정치적 쟁점으로 다시 부상한 '세종시'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는 청문회 기간 내내 세종시 원안 수정 입장을 고수해 정치적·지역적 갈등을 조장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변경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 혁신도시를 축소하기 위한 신호탄이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엄청난 국정 혼란만 초래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학자로서 대강 사업과 감세 정책 등 MB 노믹스를 비판해 온 정 후보자라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조언자로 나서지도 관심이다. 자신의 평소 지론과 소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나 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정 후보자의 총리 입각은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큰 모험이다. 그리고 그 첫 시험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총리로서 국정운영 전반에서 역량을 보여주는 일이다. 대통령의 비유나 맞추며 정권의 장식품 노릇에 만족하는 총리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출발할 정운찬 내각이 진정한 화합 내각, 중도실용 내각이 되기를 기대한다.

'짖은 통화중' 제 역할 못하는 광주 112

광주지방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112 전화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통화량이 일시에 몰리거나 연결이 불가능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112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가 낭패를 겪거나 법인 검거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광주에서 발생한 4인조 보석 강도 사건 역시 112 신고가 더디게 연결돼 손쉽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광주 112 전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범죄 신고를 접수받는 112 지령실에는 14명의 요원이 3개 조로 나뉘어 1인당 60회선의 전화를 맡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가 폭주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신고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스템 개선도 시급하다. 현재 112와

직접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신고자의 위치나 전화번호 등 어떠한 정보도 입력되지 않는다. 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안 부재상태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만명 당 범죄 발생건수가 전국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광주는 '범죄 취약도시'로 전락했다. 이런 와중에 112 전화마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지역 이미지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112 전화는 각종 사건사고나 범죄 사실을 누구나 손쉽게 경찰에 알리는 중추선이자 통합 통신망이다. 112 전화가 어떠한 경우에도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긴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없도록 장난 전화를 자제하는 시민들의 노력도 요구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용복

지금 온 나라가 신종 플루라는 열병을 앓고 있다. 연일 스포츠 중계하듯이 언론에 보도되는 발병상황이나 신종 플루를 걱정해 다양한 축제나 행사가 취소되는 현상을 보면 '신종 플루 신드롬'으로 불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같은 사회기류를 타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발효식품이나 홍삼류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신종 플루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을 유지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터인데, 필자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까 한다. 평소 꾸준

줄인다는 환경적·윤리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 농산물의 품질이 뒤쳐지면서 지역 농산물 소비운동을 부르짖기 민망하다.

과연 우리 지역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만한가? 전남은 2008년말 경지면적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이 10만ha를 넘어 총 경지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친환경 인증면적의 58%에 달해 '친환경 일번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만큼 우리 지역 농산물은 믿고 먹을 만하다는 반증이다.

필자는 이렇듯 안전한 우리지역 농산

현명한 소비자의 지혜

한 운동과 더불어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것이다.

좋은 음식이란 값비싼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비싼 옷도 우리 몸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듯이 음식도 우리의 몸에 맞아야 좋은 음식이다. 우리의 몸(身)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土)이 풀이 아님에 (不二) 따라, 우리의 몸에 맞는 음식이란 우리 땅,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말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지역 생산품 소비운동과 맞물려 중요한 소비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Local Food)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가까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운송거리, 유통단계 등 농산물이 식단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공간적·사회적인 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귀찮아하고 있다. 바로 집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협 하나마트를 찾으면 되고, 더욱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한다면 농협이 운영하는 직거래장터를 찾으면 된다.

농협은 지난 4월부터 매주 금요일에 전남도와 공동으로 광주 삼부지구 노변광장에 직거래장터를 열어 계절 농산물과 축산물, 지역 특산물 등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추석맞이 특별행사를 개최해 추석선물과 차례상에 쓰일 사과·배·밤 등 우수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동안 광주 동구의 KT정보센터 광장에서 특별 직거래장터를 열어 소비자의 발품을 달아줄 계획이다.

지역 농산물 소비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돼 있어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아닌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부지 지역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환경을 돌보는 현명한 소비자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농협전남지역본부장>

기고



서복남

세계는 에너지 위기에 따른 경제성장 약화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화석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발생량을 줄이면서 지속적인 성장에 가능한 녹색성장 경제체제로 변화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에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술·산업·제품·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녹색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수입과 가격변동이 외부여건 변화에 민감하며, 전체 에너지의 80%를 화석연료로 충당하고 있

민에게 심어준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에 이어 녹색축산 5개년계획, 친환경수산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녹색생명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또한, 전국 최초로 친환경 지역개발을 선언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선지역, 탄소제로도시, 탄소 중립지역 등 지역개발 발전 신개념 모델을 제시하였다. 1천964개의 섬, 6천32km의 리아스식 해안 등 다양한 해양 녹색자원과 솔로시안, 가사문화, 판소리 등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체험관광 상품화로 차별화된 녹색관광자원을 개발하였다.

전담되는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

녹색성장, 전남 미래를 위한 준비

어 기후변화 적응에 취약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세계 9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6위이며 수소연료전지, 전력 효율성 향상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 온실가스 영향평가·적응분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 미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이후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발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 설정 시나리오 제시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2005년부터 '녹색의 땅 전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수축산업, 지역개발,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녹색성장 정책을 펴왔다. 풍부한 일사량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꾸준히 육성한 결과 태양광·풍력·조력 발전량이 143MW로 전국 생산량의 27.2%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요즘되지 않은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은 전남'이라는 인식을 국

대를 맞이하여 21C 전남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지를 통한 탄소금융허브 육성이다. 독일 튜브스드 아데 본부를 유치하여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개설하고 발전, 석유화학 등 24개사가 참여하는 탄소배출권 모의거래를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그린에너지 강국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이다. 서남해안 신재생에너지벨트 조성, 풍력해양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태양전지 R&D 집중 투자 등으로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국 생산량의 40%를 생산할 계획이다.

셋째, 수질개선·치수·자원화와 자연생태를 활용한 친환경 하천관리이다. 영산강 살리기, 섬진강 프로젝트, 생태하천복원, 하천변 생태 숲 조성, 중소댐 건설 등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넷째,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이다. 저탄소형 산업구조 개편, 그린산업단지 조성, 첨단 자전거 클러스터 조성, 예코타운 조성, 해양에너지 산 업 육성 등으로 21C 전남발전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 정책기획관>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로 유통마진 줄여야

얼마 전 조사를 보니 농축산물 가격중 농가의 몫은 44%인 반면에 나머지 56%는 유통비용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농민들이 피맛 흘려서 생산한 농산물의 이익 중 절반 이상이 유통단계도 유통과 판매 업자들한테 돌아간다니 너무 속상하다.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원래 복잡하여 항상 농민들에게 손해가 됐고, 그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농산물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유통과정이 복잡하므로 수반되는 물류비용이 20~30% 정도라면

모든가 56%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봐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는 즉시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단계별로 감시 감독해서 유통마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농가와 도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도심 직거래 장터를 상설화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홍보를 확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상설 직거래 농산물 구입을 늘리도록 유도해 주기를 바란다.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1동

모두가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상가 주차장으로 둔갑

요즘 퇴근시간만 되면 주차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운전자들은 대개 집 근처에 주차공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자리가 없으면 한적한 길거리나 도심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될 일만작이다.

그러나 이런 데도 말만 공용이지 사실은 개인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어 이용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 주차구획을 그어 놓은 곳은 분명 아무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인근 식당이나 슈퍼, 미용실 등 영업점이 있는 경우 그 주차장은 영업점의 개인주차장처럼

이용된다. 요즘은 각종 택배차량들까지 합세해 주차난을 부추긴다. 일부 영업점은 아예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놓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와 일반주차는 엄두도 못내게 한다. 차를 추진하거나 방향을 바꾸다가 그 구조물에 차를 긁히는 경우도 흔하다.

업소들의 이 같은 횡포를 단속해줘야 한다. 안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용주차장이 업소들의 사유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행정관청의 직책인 조치가 있어 야겠다.

▲김현학·광주시 북구 양과동

無 等 鼓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기본 생활조건을 꼽으라면? 익히 알고 있는 의(衣)·식(食)·주(住)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통(通)이다.

통(通)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다른 지역을 오가는 교통(交通)이다. 태초 인간은 걸어서 움직인 후 꾸준하게 탈것을 진보시켰다.

다음은 통신(通信)이다. 수기(手旗)와 봉화(烽火)에 의존하던 통신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것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1847~1922)이 최초로 전화를 발명하면서부터다. (안토니오 무치가 진정한 전화 발명가라는 주장도 있

그동안 생활필수품과 다름없는 휴대폰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동통신업체가 요금에 폭리를 매겼다는 주장에 업계는 반박했지만 시민에게 통신비는 가법치 않은 집이었다.

이에 따라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통신비 20% 절감'을 내걸었다. 다음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출범 후 통신비 인하를 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했으나 흐지부지 됐다.

진통 끝에 통신비가 마침내 인하된다. 통신비 인하 방침에 따라 SK텔레콤은 10초당 18원을 부과하던 이동통신 요금을 1초당 1.8원씩 세분해서 매기기로 하는 등

통신업계의 합리적인 인하 계획이 발표됐다.

통신비 인하는 쪼들리는 서민들에게 모처럼 단비 같은 소식이다. 생활의 필수요소인 통신비 인하조치가말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치'임을 입증했다.

/박치경 정치부장unipark@kwangju.co.kr

의·식·주+통(通)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書庚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7-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이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정 치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사회 1부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